

# '91 춘계 석유정책 세미나 종합토론 (全文)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 사회 : 李會晟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 토론 :

- 張錫靖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장)
- 韓竣皓 (동력자원부 공보관)
- 李東圭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 金貫榮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장)
- 송영기 (동력자원부 공보실행정사무관)
- 흥기두 (동력자원부 행정사무관)
- 康星喆 (석유협회 부회장)
- 安明柱 (油公 부사장)
- 黃斗烈 (油公 이사)
- 許東秀 (湖油 부사장)
- 沈載赫 (湖油 이사)
- 河東沅 (京仁에너지 전무)
- 全在浩 (京仁에너지 이사)
- 張珉淳 (雙龍精油 전무)
- 李祥珉 (雙龍精油 이사)
- 李祥求 (極東精油 이사)
- 金乾洽 (석유협회 홍보실장)
-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보좌역)
- 김인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리 : 崔鍾鎬 (석유협회 홍보실)

- 양승현 (서울신문 기자)
- 니종호 (조선일보 기자)
- 방준식 (한국일보 기자)
- 박경은 (세계일보 기자)
- 이인길 (동아일보 기자)
- 박신옥 (중앙일보 기자)
- 서배원 (경향신문 기자)
- 조재봉 (국민일보 기자)
- 김덕성 (연합통신 기자)
- 김성애 (코리아헤럴드 기자)
- 시동석 (코리아헤럴드 기자)
- 김남인 (내외경제 기자)
- 최성범 (서울경제 기자)
- 이기훈 (중앙경제 기자)
- 심상민 (한국경제 기자)
- 함승용 (매일경제 기자)
- 이보길 (KBS 기자)
- 조기양 (MBC 기자)
- 이길형 (CBS 기자)

사 회 : 지금부터 '91 춘계석유정책세미나 종합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춘계정책세미나에서 세워진 관례랄까 전통을 보면 토론시간에는 토론주제의 대상이나 범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나중에 토론이 마무리될 때는 석유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정부와 산업계에 관련되는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항상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합토론도 그런 관례를 좇아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토론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까지 발표된 네개의 발표에 대해서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발제로서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羅鐘顯 : 개방일정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李國장께서는 올해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이라는 것이, 저는 동자부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시다마는, 제가 나왔을 때부터 그때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정의 발효가 올해에 될 것이라고 봤을 때, 올해는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본자유화 단계에서 그때는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정유사들을 취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특히 정유사들이 동자부와 관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몸을 사립니다. 그것이 정부규제가 많고 심지어는 이익률까지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주어진 틀 속에서 별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잘 안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동자부에

서 비상수급대책반을 만들었고, 그때 보도자료를 보면 각 정유사에도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업계 기사를 좀 많이 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정유업계는 이런 사태를 당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이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동자부에서 내놓은 것 이외에 정유업계에서 제가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동자부 눈치를 살핀다는 생각인데 만약 눈치를 살피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 경우 혹시 무슨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朴信玉 :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李석유국장께 여쭙 보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쏘이사께서 건의하신 것 중에도 정유사들의 이윤규제를 완화해달라, 풀어달라, 이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어차피 정유사들 쪽에는 이윤규제라는 것이 바로 연결될 것이고, 또 반면에 소비자들 쪽에서는 바로 그것이 가격부담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기금정수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하는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실히 가격자율화를 해 간다. 또 그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정유사들간의 경쟁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격자율화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자유화 한다하면서도 계속 기금은 정수하겠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기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에너지 관련사업에 쓴다하는 사업기금 성격도 있었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을 저유가후에는 일정 유가 선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가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기준선과 도입가와의 차액, 이런 것들을 흡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동안 기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격관리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컸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자유화 한다 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그런 기금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하니까 그것이 좀

의아하고 그렇다면 실제 가격을 자유화 했으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할 것이냐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까지 해서 기금을 계속 징수하겠다 하는 것은 더 이상은 가격관리차원이 아니라 유전개발이나 비축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에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징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여태까지 기금자체가 목적 기금이라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나 필요한 규모같은 것이 상정되고 걷어왔던 것이 아니라 주로는 그냥 다다익선식으로 걷히는 대로 걷어서 재원이 있으니가 이런 저런 사업에 쓴다하는 식으로 써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여타튼 기금을 걷겠다는 것은 정책적인 명분도 없을 뿐더러 실제 그만큼 국민이 부담하여 내는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이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不 明 : 京仁에너지 全在浩이사의 말씀은 시설투자비의 내부조달을 위해서 가격자유화를 통한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李國장께서는 가격자유화를 통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상반되는 가격자유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李國장께서는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업계로서는 당연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또는 이요구를 무시해도 정유업계가 석유를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 회 : 세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李國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요.

李東圭 : 세분질의가 아주 예리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험을 많이 봤는데 시험치고는 아주 어려운 시험문제 같습니다.

우선 羅鐘顯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발효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유통이나 자본참입분야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하는 그런 요지로 해석을 하고 저희로는 우루과이라운드자체가 우선 서비스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에 먼저 시작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조분야인 소위 석유 정제쪽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통부문을 보면 유통부문에 소위 수출입이 자율화 되고 또 메이저라든지 외국의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유통에 참여한다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해야될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韓國 시장에 와서 차익이나 따가지고 가버려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에 기여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네 이익이나 챙겨가지고 가는 것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제도 보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의 승인제도 같은 것을 남겨 놓은 것은 그런 취지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과 국제가격이 항상 경쟁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국내수급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을 자율화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외국 기업에 차익이나 노려 참여하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통도 점차 개방해 가고, 더욱이나 유통분야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도 규제를 자꾸 완화해 가고, 또 차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완전 자율화를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개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본참입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64년부터 油公으로 시작해서 지금 5개 정유회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84만배럴정도 생산능력을 갖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油公이나 湖南精油가 대단히 크고 나머지 3개 정유사가 좀 작은 규모인데, 앞으로 석유수요를 봐가면서 정부가 내년, 내후년인 93년부터는 123만 5000배럴정도, 이렇게 93년도에 수요의 130%에 해당되는, 안정공급선인 130%

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증설을 허가 해서 각 정유사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 개념은 경쟁 구조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정부 정책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공, 호남이 38만배럴, 나머지가 16만배럴씩, 소위 경제규모로, 또 경쟁규모로 최소한도 15만배럴이상 확장하여 5개 정유사가 우선은 크고 작든간에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빨리 완성을 시키고 그레가지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우리나라에 적정 경제 규모다, 우선은 이렇게 판단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 전개와 자유화 개방화에 발 맞추어가지고 신규참입같은 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현재 정부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朴信玉 기자가 말씀해주신 기금 문제인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세금과는 다르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기금이라는 것이 석유소비자들이 결국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석유산업에 쓰여져야 된다는 석유기금에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듯이 어디까지나 석유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석유 가격의 완충기능을 수행하는데 기금이 많이 쓰여졌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난 걸프전쟁때 배럴당 32달러까지 올랐는데 기금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자유시장 가격같으면 기름가격을 32달러까지 올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15달러, 18달러 이렇게 떨어졌으면 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석유가격이 너무나도 우리 경제가 기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기름체질인데 기름 가격이 가격이 50%, 100% 올라갔다가, 또 언제 한 50%떨어졌다가 이것은 나라 전체 경제에 쇼크가 대단히 많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석유기금의 완충 역할의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완충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가 변동이 그렇게 기폭이 심한 때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완충 역할을 거의 폐기

해 가는, 없어져 가는, 또 앞으로의 유가 전망도 종래와는 좀 달리 그렇게 기폭이 심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는 우리 정유업체나 석유시장업체도 능력이 이제 옛날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61년도에 1인당 GNP가 85달러 시대의 제도나 능력과 지금 5000달러 시대의 우리의 대응 능력 시설제도는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개방이다 자유화다 하는 것도 이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질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의 완충기능은 개방화·자유화에 따라서 없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금을 완전히 없애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차 석유위기 때 비축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1조원을 석유기금으로 하여 투자를 해서 60일분을 비축을 했는데 그것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는 한 35일분 이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도 한 1조 7000억원이 되어야 96년까지 국내 수요의 60일분 비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역시 석유를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정액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그러한 기금의 역할로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 해도 되고 기금으로 해도 되는 것이지만 석유기금의 의미가 특정목적, 특정사업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송유관사업 같은 것도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이런 생각입니다.

朴信玉 :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격의 완충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저의 첫번째 질문은 가격의 완충기능이 아니라 가격의 관리기능에 기입입니다. 그래서 「유가를 자유화한다는 마당에 왜 기금을 계속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간다.」, 제 첫번째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래 기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컨대 18불이면 18불, 19.4불이면 19.4불, 이런 어떤 기준선, 국내 관리가격의 기준선을 놓고 그것의 차액을 걷는 식으로써 통제가격의 수단으로서 기금이 역할해온 측면이 있

고, 또 하나는 기금을 그런 식으로 징수하고 보전하고 이런 것이 사실 정유사들끼리 어떤 경쟁을 막아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충 보장되는 가격에 안주하게 하는 그런 경쟁 제한적인 역할 말합니다.

그런 종래 역할의 부작용과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유가를 자유화, 특히 경쟁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가를 자율화한다는 마당에도 그러한 기금을 계속 건졌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간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李東圭: 예. 그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기금을 부과한다는 것 하고 자율화한다는 것 하고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충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율화 하면 기금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달리 보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금이 5%이면 5%, 8%이면 8%가 붙듯이 기금이 부과된 그 가격으로서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완충 기능으로서의 기금이 아니라 비축사업이면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분담이 배럴당 1불이면 1불, 50센트면 50센트 부과된 상태에서 경쟁가격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동안 세금이 예컨대 5%다 하고 부과된 채 경쟁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금제도 보다는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朴信玉: 어차피 예컨대 5%의 세금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제연동제로 하는 이유는 자유화 한다는 것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분명 소비자들한테도 역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금을 계속 붙여 가면서 결국은 정유사들은 내는 가격을 그만큼 가격에 전가하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결국 자유화를 해도 그 만큼의 기금 부담은 어차피 가격전가로 다 받게 되어있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쪽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李東圭: 그러니까 기름을 최종소비자가 사용하지만

수입을 하는 경우나 원유를 가지고 국내에서 만드는 경우나 일정 기금이 부담이 되면 거기에 조성된 기금으로 소비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간에 혜택은 소비자한테 가는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더이상 하고 싶은 여러가지 이야기는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웃음 많음)

사 회: 그 질문에 대해서는 金在浩이사님께서도 아마 의견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조금더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아까 세번째 질문도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가격자율화와 투자재원 조달과의 상충되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李東圭: 투자재원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적정이윤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고,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원칙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업이라는 사업이 장치산업이고 또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시설개전을 하기 위해서 크래킹 시설이라든지 탈황시설이라든지 종래의 상압증류시설 보다는 3배 내지 5배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설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자율화 하면 아무래도 그 경쟁하에서 기업이 자기의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윤 추구는 종래에 정부가 정해준 제도하에서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하고 지체를 짜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서 기술개발도 하고 그래서 원가를 줄이고 그 경쟁하에서 적정 이윤을 확보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출자를 증자해서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그래서 보다 더 발전적인 소비자를 위한 기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러한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사 회: 앞으로 더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羅기자님 두번째 사항인데 말이지요.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너무 정부 규제하에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고, 창의력없이 틀 속에서 너무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유업계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黃斗烈** : 저도 사실 능력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를 제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보시기에 정유사가 정부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라든지 이런 인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가격 관리제도라든가, 제반시설의 인허가라든가 모든 총체적인 규제하에서 국내 정유산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맞설래야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힘의 불균형때문에 맞설 수 없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런 총체적인 규제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맞서느니 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업계가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같은 틀 같은 룰 속에서 게임을 했고 또 스파링 파트너정도로서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사람은 코치이고 한사람은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한사람은 코치해주는 스파링파트너이고 한사람은 선수인데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한편인데, 그런 정도로 이해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웃음많음)

그러나 앞으로 점점 규제가 풀어지고 이런 것이 좀더 자율화가 되면 더러는 탄소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되고 확대 재 생산해야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회에 환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매년 종업원은 자꾸 늘지요, 쓸 용도는 자꾸 커지지요, 코스트는 올라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기대하는 이윤의 수준도 커지고 또 채투자에 대한 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 기업은 불만이라기 보다는 그런 욕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만족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李寅吉** : 가격을 자율화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과다 이익 부분은 어떻게, 정유사가 다 가져 가게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수단을 통해가지고 정부가 그것을 다시 가져 가게 됩니까?

**李東圭** : 가격을 자율화 한다는 것은 경쟁하에서 제 이윤 추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은 기업이 차지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이익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이익에 대한 국가에 적절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적당한 경쟁하에서 이익을 추구했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적당한 경쟁하에서 이익 추구를 하면 그것을 보호를 해주어야 더욱 적당한 경쟁이 일어나고 더욱 적당한 기업도 발전하고 그래서 적당한 이익이 생기면 세금으로 재원이 들어오면 나라 살림도 잘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李東圭** : 그래서 경쟁하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은 과당 이익이라는 표현을 붙이기가 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寅吉** : 이 가격자율화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생기는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요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가격이 폭등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마진도 정부가 세금을, 물론 이익이 생기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오른 가격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부담입니까? 국민한테 돌아가는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의문이 가고, 또 한가지는 이 가격 자율화와 관련해가지고 朴信玉 기자의 질문과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가격을 자율화 하면서 기금을 계속 징수하겠다는 하는 이야기는 기금을 거두려면 어떤 기준 가격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를 말을 바꿔 얘기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예컨대 그 가격의 일부를 인하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준 가격이 상으로 오를 경우에는 그것은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봐

두겠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가격 자율화라는 것은 여기 유인물에도 써져 있습니다만, 결국은 가격구조의 국제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의 소비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여러가지 어떤 여건 변화를 감안해볼 때 방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자율화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우선 소비구조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국제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국내의 어떤 정유 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빨리 변해 가는 소비구조의 변화에 맞출 수가 있느냐, 여기에 아까 쏘이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중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선결과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는 마당에 가격자율화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오르지 않느냐, 동차부에서는 물론 주유소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또 정유사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해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으로 실무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경쟁에 의해서 국민한테 돌아가는 그 이익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반면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런 여건이 충족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화를 했을 때에는 결국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李東圭: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결국 자율화에 대한 역효과적인 것, 부작용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현재 규제가격제도 하에서의 장점, 이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수급의 불균형상태에서 가격을 자율화 해놓으면 비싸게 받는다는지, 특히 굶던 가수요 같이 이런 때에는 자율화했다면 등유가격 같은 것은 수요공급의 가격 원칙에 의하면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경우 기업이 이익을 많이 볼 것 입니다.

그런 것을 현재의 석유기금이라든지 현재의 규제가 가격 하에서는 이익을 못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규제

가격제와 자율화 가격제와의 장단점이 거꾸로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인데 결국은 자율화 될 때에는 이익이 조세라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흡수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격 완충을 위한 기금 제도가 없는 한 어차피 가격 완충을 위한 기금 제도가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반 석유정제업 말고 다른 기업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역시 세금으로 회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다만 그러한 것이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수급측면에서 어떤 일시적인 수급에 아주 부족 또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의 비축 기능이 그때 주야하게 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을 기금에서 물량공급으로 해서 가격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의 자율화 추진과 함께 제품 비축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것은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기금, 소위 비축이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이러한 앞으로의 향후 5년간이면 5년, 10년간이면 10년의 장기 계획을 짚 만들어 놓고 그에 필요한 기금이 얼마다, 그러면 기금이 소요되는 기름의 양이 얼마다. 그러면 배럴당 어느정도 기금이 징수되면 좋겠다, 등등 제도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李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통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금을 그런 방향으로 발전 시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화가 선결과제, 물론 자율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선결과제가 많지요. 예컨대 유통구조를 보면 우리 유통구조가 자율화 여건에는 아직도 많이 미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유업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구조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

이 발전을 할텐데 유통구조는 사실은 전국 방방곡곡에 주유소가 3000여개있고, 대리점이 한 100여개있고, 부판점이 한 7000여개가 있지만 그것이 자율화 여건이 갖추어 졌느냐, 아직도 걱정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왜 그러냐 현재 보십시오. 전국에 지금 석유시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油公이 한 45%, 湖油가 한 35%, 두 군데만 80%된다 이것입니다. 나머지가 한 20%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쟁구조 유통 체계가 이루어져야 유통경쟁이 될텐데 어느 회사는 어느 지역에는 없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유통분야 경쟁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율화 되고 개방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균형있게 각사의 유통구조가 침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통시장이 균형있게 발전이 안되고 있다하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유통 시장의 주유소 하나만 하더라도 서울 같으면 몇 십억 되고 이렇게 되어서 정유사가 유통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통 시장은 정유사 못지 않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그 자체가 역사적인 행태의 하나의 집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태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관리 등등, 단순한 일시적인 돈투자만 된다고 그래서 시장이 왔다갔다 하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은 정유사의 경쟁구조로 가기 위한 그런 정부지원 이외에 유통시장도 굉장히 불붙는 경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과도기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그 반면에 소비자에 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향에서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발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사 회 :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선결과제가 수출입 자율화를 아주 적극화한 다음에 가격자율화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수출입자율화 없는 가격자율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아까 보고에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품의 수출입자율화가 다른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원활하다면 수급 불균형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아까 발표문에도 그런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李寅吉 : 크래킹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투자비가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내에 어떤 기름의 어떤 소비구조를 맞추려고 하려면 이 크래킹 시설이라는 것이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 가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당장에 가격도 묶여 있고 정유사 경우에 내부유보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자체 자금으로는...

사 회 : 그럴 경우에 어떻게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全在浩 :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길형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조달을 하려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정유사의 허용이익이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일단 국내여신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해외차입을 하려면 또 통화량 증발 때문에 그것도 또 규제를 받고 있고 있으니 자금이나 사내유보가 안된 상태에서 업그레이딩 시설도 해야되고 시설투자도 해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되겠는데, 돈없이 경쟁력을 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화라는 것이 무조건 가격부터 자율화시켜가지고 가격 많이 받아가지고 사내유보를 통해서 시설투자도 하고 하자는 뜻이 아니라 자유화 이전에 우선 전 단계로 허용이익 규제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여신 규제도 좀 해제 시켜주고 세계금융상의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고,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소위 소비패턴에 맞춰서 업그레이딩 시설도 할 수 있고 또 경제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시설확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 후에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



서 그런 점은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율화가 된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올라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가격의 원칙이라는 것이 저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 소위 3P원칙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유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나, 거래조건이나 그 다음에 품질이나 여러가지 자유경쟁을 통한 선의의 경쟁에서 그것이 원만히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도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가격이 자율화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해외 시장 가격과 정비례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지 국내 시장이 가격 인상 됐다고 해서 정유사가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자율화된 시점에서는 인상된 리스크를 왜 정유사만 져야 되느냐, 유통부문과 소비자도 져야 된다고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수기에 가격이 쌀때 좀 비축해 놓았다가 가격 비쌀때는 안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해서 가격에 대한 위험분산을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취지에서 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율화된 이후부터 또 가격인상에 대한 위험부담을 예를 들면 정제업자가 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사 회 : 지금 손 이사님 말씀들어보니까 가격 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웃음)

金德成 : 이것이 좀 상당히 진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미스 차이 물어 본것 하나, 이런 것에도 보충질문을 하게되면 기금과 가격자율화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말입니다. 가격자율화라는 것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내리는 것이 자율화의 기본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 징수하면서 가격 자율화 하겠다는 것이 동자부 관리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준유가 18달러가 된 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게 무

슨 기준으로 18달러가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작년에 휘발유와 등유값을 올리다 보니까 19.40달러로 된 것인데 지금 국제유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자율화도 당장은 안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금은 계속 걷고, 그 다음에 진짜 국제유가가 21달러가 되면 가격 자율화 했으니까 국내 유가 올린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떨어졌을때는 기금 먹고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는 가격자율화하고 그러면 동자부, 이렇게 신나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정유사 아무 상관없어요.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국민이 부담이 크고 국제유가가 14달러가 되면 그것은 기금으로 묶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과거에 그 기금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그 설득을 어떻게 국민한테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아까 朴信玉기자가 물어본 것도 그런 의미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사 회 : 그러니까 지금 기금의 징수 방법을 지금처럼 기준가와의 차액을 걷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계속 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웃음)

기금 징수방법의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金貫榮 : 예. 기금의 징수와 자율화는 아까 李東圭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제 가격과 국내가격 차이를 징수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징수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한 기금을  $\alpha$  라고 냈을 때 국제가격 +  $\alpha$  에 따라서 움직이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율화에 하등 제한이 없다 이것이지요. 두번째 방법은 지금 19.40달러의 기준가를 유지해서 기금을 걷는다고 할 때 19.40달러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면 기금징수를 하더라도, 자율화가 되더라도 기금징수에는 변화가 나른다고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격을 보면 477원이 440원으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휘발유가격은 440원이라고 유지해서 원유가격을 환산하게 되면 기금정수가 예를 들어서 15원에서 10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두가지 방법이 다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휘발유, 등유가격을 자율화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방법은 우리가 기금을 고정화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가격이 100원인데 우리는 100원에 프러스 20원의 기금을 붙여서 120원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국제가격이 80원 되게 되면 100원이 되고 국제가격이 120원 되면 우리는 140원 되게 하겠다. 그런 제도로 가져가게 하느냐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다음 방법은 현행 과정에서 휘발유가격의 변동을 시장구조에 맡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시장구조에 맡겨놔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대로 그것을 역으로 역산해서 원유가격을 19달러 40센트가 아니라 19달러 20센트 거래가 된다면 19달러 20센트에 맞춰서 기금을 걷으면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해서 자유화와 기금의 징수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한 관련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朴信玉 : 지금 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여쭙 보겠습니다.

요는 실제 걷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걷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alpha$  만큼을 엮어서 걷으니까, 그리고 또 국제가의 변동에 따라서 국제가 +  $\alpha$ 에서 그냥 플로팅을 시키니까 전혀 자유화와 이 기금 걷는 것과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식으로 걷을 것이냐라는 방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어차피  $\alpha$  만큼은 소비자가 계속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렇게 하면서까지 기금을 걷을 필요가 그

만큼 있는 것이냐하는 데 대해서 사실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왜그런가 하면 말이죠. 예컨대 올해같은 경우에 석유사업기금운용수익과 회수된 것만으로 해서도 연간 4700억으로 자금운용계획이 잡혀있지요. 글썽요. 앞으로는 에너지 관련사업으로 축소를 해서 쓰겠다는 그런 방침을 얘기들 들었었습니다만 과연 향후 에너지 관련사업을 어떻게 더 벌여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적어도 연간 4000억 이상 조성될 수 있는 자금규모라면 그것은 만만치 않은 규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李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말입니다. 결국은 석유소비자가 부담을 해서 석유사업에 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근간의 기금이 어디에 운용되어 왔는가 봤을 때 말입니다. 적어도 기금에서 1조 2000억, 기금의 거의 1/4쯤은 석유소비자하고 상관없이 다른 정책금융에 들어가 있지요. 재정에 빌려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석유소비자와 관련 없는 전력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 사업이라든가 석유소비자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쪽으로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그간의 기금운용 실적에서 들어나고 있는 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럴 바에 있어서 아직까지 석유소비자가 계속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요는 기금을 걷어가지고 앞으로 쓸게 비축이며 자원개발이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 관련사업에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축이며 에너지 해외유전개발이며 하는 것이 더이상 석유소비자들에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태까지 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던, 또 사실상 편법이었다는 그런 것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편법식으로 그냥 기금으로 석유수입에 엮어서 걷고, 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그러기 보다는 정말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전략비축이고 이런 것이라면 과감히 그것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또 그렇게 요구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상황이 앞으로 바뀔텐데도 계속 고

집하겠다. 전 그것은 상당히 좀 여러가지 점에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부회장 : 박기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김과장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미나가 시작된 이후에 두 분이 추가적으로 와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여기 토의에 같이 중요한고견을 말씀해주실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두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湖南精油에서 許東秀 부사장님께서 나와계십니다 (일동박수)

許부사장님은 현재 사업전반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계를 대표해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소개를 드리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雙龍精油에서 張珉淳 전무님께서 나와계십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김과장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金貫榮 : 지금 박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자유화와 기금의 관계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금은 기금의 존속이 관련 본래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화와 기금의 관련이 있다고 할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국제가격은 국제가격 대로 소비자가 쓰게해야 된다는 로직이 붙어야 자유화와 기금이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국제가격 +  $\alpha$  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하게 되면 자유화와 기금의 관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으로가서 기금이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이때까지 기금의 존속이 방만해서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석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에서 똑같은 질타를 받았고 또 기금의 징수도 과거의 원유가격 차이를 몽땅 다 거둔 제도적인 상황에

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수 기금만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한정해서 하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석유사업법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필요한 사업을 얼마만큼 설정해서 얼마의 한도에서 기금을 걷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행령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일단 국민적인 합의가 기금은 존속해야 된다. 다만 기금의 존속에서 그 범위는 한정적이고, 한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징수되어야 되고, 한정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작년에 있었다고 볼진데는 기금존속의 문제는 더이상 자유화와 연관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信玉 : 그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금과 자유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까지 하면서 지금 기금을 계속 걷는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해서 그랬던 얘기고, 결국 자유화와 기금과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느냐 지금 자유화 한다는 것은 요는 정유사들의 경쟁여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유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간의 징수 측면만 생각을 해보지요. 기금을 징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전받고 이런 부분이 과연 정유사들의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고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봅니다. 무엇보다 우선은 동자부가 적어도 사실상 부인하기는 힘든 부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자부가 그간의 기금을 어떻게 얼마나 걷느냐 하는 것 자체가 정유사들한테 상당한 하나의 압력이 됐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여하튼 정유사들 쪽에서도 당장 그만큼의 돈을 우선 직접적으로 낸다는 측면에서 정유사 쪽에서도 계속 기금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서로 걷는 동자부 입장이나 그 기금을 내면서 거기에 지원을 요구하는 정유사 입장이나 결국은 그것 자체가 말입니다. 서로 경쟁여건을 정유사들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독

립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정부와정유사 간이건, 아니면 정유사들끼리 건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또 서로 피차 할말이 있는 관계로 끌여가는 그런 것은 됐을 지언정 저는 그것이 결코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해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그 기금징수방법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바뀔다하더라도 직접 내고 견고 하는 식의 제도 자체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것이지만 결국 정유사들의 경쟁여건을 촉진한다 조성한다 하는 그런 자유화의 기본 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날 수 있다 하는 얘기이지요. 바로 그런 점에서 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분명 자유화와는 역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사 회 :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金貫榮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화의 본질적인 내용은 朴信玉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유사가 경쟁을 통해서 그것이 소비자한테 직·간접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자유화의 근본취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자유화를 아직까지 못 했던 사정은 우선 경쟁기반의 여건이 조성 안됐다 하는 측면, 또 정책적인 배려로 예를 들어서 물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여러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자유화를 가로 막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기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몽땅 다 기금으로 걷는다면 실제 자유화의 의미는 없습니다. 朴信玉 기자님 보시는 견해대로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겠다는 자유화의 취지는 분명 그것이 경쟁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시키는 그런 바탕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사가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담합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겠다 하는 것이 첫째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수입해서 팔수 있다면 정유사가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와중에서 정유업자한테

기금을  $\alpha$  만큼 걷었으면, 수입업자도  $\alpha$  만큼 내고 수입해서 팔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 가격변화에 따라서 국내 소비자는 국제가격 +  $\alpha$  만큼 변동해서 구입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alpha$  의 존재가치가 필요하느냐 없느냐 하는 정책적인 차원을 떠나서 자유화의 경쟁은 곧바로 소비자한테 가게끔 하겠다는 것이지요. 다만 왜 전유종을 한꺼번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에 아직 취약적인 분야가 「물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일시에 자유화할 경우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자유화 기반조성이 아직 덜 됐다는 측면 때문에 전 유종의 자유화가 결코 정유산업 자유화로 이어가는데 바람직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쟁소지가 충분한 유종부터 하자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또 한가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론에 벗어나서 어떤 비상시에 공급자 측면에서 과대이익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물론 그런 소지가 있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럴때를 대비해서 비상시 유보조치는 꼭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석유사업법 15조에 최고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을 살리면서 예를 들어서 걸프사태와 같은 사태가 났을 때는 다시 최고가격제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내포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화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만이 자유화의 본래의 가치가 있고 또 그 가치가 소비자한테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탕에서만 자유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 회 : 네. 오늘 토론이 과거 어느 때 보다는 아주 진지하고 학구적인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많은 제품 가운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제품 가운데 원료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최종소비자 가격은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이 수 없이 많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이제 앞으로 부과되는 형태가 그런 관세와 비슷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격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 운영하는 면에서 지금의 틀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가격자율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제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그랬을 때 정부가 벗는 큰 부담의 하나가 정유회사의 이윤에 직접 개입해서 결정한다 하는 그 부담을 벗게 됩니다. 그것이 정유회사로 하여금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한테 적절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가가 갖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제품 가격이라는 것이 폴코스트를 반영을 보통 안합니다. 다시말해서 투자비가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여건에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탈황시설도 해야되고 또 다른 여러가지 공익적인 투자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제품의 국제가격에 리퍼런스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국내가격을 플로팅했을 때는 국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공익성적인 투자가 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품 국내 가격에 대한 그것이 기금이 되건 관세가 되건 다른 종류의 세금이 되건 개입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환경투자비 같은 것이 유류에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자율화된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기금을 통하건 또는 특소세를 통하건간에 개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휘발유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우리로 치면 많은 특소세를 또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金德成 : 정유회사 별로 도입가격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을 어떻게 늘이고, 또 중질유 경질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금징수로 인해 가지고 경영에 별로 큰 영향을 안 주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싸게 들어오는 회사는 아주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하고 같아지는 것입니까!

金貫榮 : 결과적으로 곧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기금을 징수하는 기준은 항상 5사 평균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평균보다 1달러 비싸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李寅吉 : 그렇게 되면 수입선이 잘못하면 오히려 더 제한되고 더 축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선 다변화와는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金貫榮 : 바로 그것은 잘 보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장기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걸프 사태가 나고 그 이후에 장기계약을 많이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5사 평균제도의 단점중의 하나가 정유사는 가급적이면 싼 카고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현물구입이 많았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전의 카고를 분석해 보면 장기계약 비중보다 현물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이것입니다. 거의 50대 50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회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카고라도 다른회사보다 경쟁적인 가격을 잡기 위해서 현물을 많이 선호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상시의 개념입니다. 그런 정책에서 볼때면 우리가 비상시에 물량확보라는 최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계약을 이렇게 몇 %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배치되는 사항이지요. 저희가 그것이 가장 애로점 중의 하나입니다.

사 회 : 康부회장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부회장 : 다시 중간에 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분께서 새로 오셨는데 우선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油公의安明柱 부사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일동박수)

내외경제의 金南仁 기자 새로 오셨습니다.

(일동박수)

사 회 : 李紀勳 기자. 네! 말씀하십시오.

李紀勳 :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오갔는데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쉽고 간단한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全在浩 이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내 석유산업의 과제와 대책에서 중요 당면과제가 국제경쟁력의 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국사와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부에 관한 건의에 있어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경쟁력도 배양되고 좀 나아지겠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참여를 허용해서 여러회사들이 경쟁을 하면 경쟁력 제고의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규제완화는 희망하시면서 신규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것을 듣고 싶고, 그리고 업계에서 보는 신규참여가 허용됐으면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 회 : 네. 全이시님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새로오신 분들께서 좀 폭넓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全在浩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정유회사와 국내정유회사의 규모나 소위 경쟁력 면에서 비교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우선 이것이 종합적인 비교는 안되었습니다. 한국 정유 5사 전체를 합쳐서 정제능력이 현재 증설을 포함하면 숫자가 더 달라집니다만 84만배럴인데 외국과 비교하면 도이치 셸이 354만배럴이고 엑슨이 398만배럴, BP가 223만 4천, 日本石油 하나가 84만 7000배럴로 규모면에서 전혀 경쟁상대가 안되는 정도로 우리의 규모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나 소위 경쟁력 제고면에서도 저희 회사 입장뿐만 아니라 정유 5사를 다 비교해 보더라도 국제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허용이익이나 정부의 과잉, 소위 규제조치를 풀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李紀勳 : 아니, 그런 방향이 정부규제완화 쪽으로 철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건의인데, 그 신규참여완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규참여 제한을 철폐하는 것인지...

全在浩 : 신규참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 경쟁력 면에서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油公이나 湖油는 현재 시설이 油公이 28만배럴이고 증설이 되면 그것이 37만 5000배럴이 되겠지요. 그리고 湖油가 38만배럴이고, 京仁和 雙龍, 極東은 지금 6만배럴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제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15만배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雙龍은 조기 준공이 되어 현재 시험중에 있고, 極東이나 京仁에너지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저수준인 경제규모로 키워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한 후에 신규 참여의 허용이 되어야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문제도 그렇습니다. 너도나도 전부 신규참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으면 마치 2차 석유위기때 2차 석유화학공업 단지가 생겨 너도나도 공장짓다가 결국가서는 불황이 와서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종합적인 경제 측면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경쟁효과면에서만 따지고 자기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참입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어도 경제규모로 키워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한 후에 신규참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李紀勳 : 그러니까 상합증류기준으로 한 15만B/D정도 시설이 완비되면 그뒤에는 개방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이회성) : 그렇게 하실까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梁承賢 간사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梁承賢 : 저한테도 질문이 올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서 대단히 섭섭한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웃음)

앞서 제가 발표하는데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雙龍精油가 사우디 국영회사인 아람코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최종시한이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참입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발표에서 얼핏 비쳤지만 「한·사우디정유회사」의 설립문제를 놓고 雙龍精油와 나머지 4개 정유회사와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보다 좀 솔직하고 저희 기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좀 충분히 각사의 입장을 알 수 있게끔 새로오신 安明柱 부사장님과 許東秀 부사장님, 그다음에 하동원 전무님, 張珉淳 전무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 마지막으로 새로 오신 京仁의 하동원 전무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黃斗烈 : 통과를하시기 전에 아까 李紀勳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쏘여사님이 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석유회사들인 메이저와 비교를 해보고 가까운 日本의 석유회사들과하고 국내정유 5사 간의 위상을 보면 대개 국제메이저들과하고 국내정유업체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소위 정유업자나 아니면 정제 리파이닝 과 마케팅이나의 개념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세계적인 메이저들은 이것이 리파이닝 과 마케팅은 한 부분이고 그의 상류부문이 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상류부문이 재미가 있으면 거기서 엔조이를 하고 그땐 하류부문을 줄이고 또 유가가 내려가면 하류부문에서 이익을 추구하

고 상류부문의 이익을 줄이고 이런 스윙전략이 가능한 것이 국제 메이저들입니다. 그런데 국내 정유 5사는 아시다시피 다들 아직까지 상류부문 쪽에서는 경험이 일천하고 또 별로 큰 퍼포먼스도 없습니다. 우린 순전히 정유 및 판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고 업종의 질적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리파이닝 과 마케팅 수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즉 공장을 운영하는 기술능력이라든가 또는 생산 코스트, 같은 값의 원유를 가지고 처리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스트면이라든가 이것을 운용하는 능력, 이러한 면에서는 가까운 日本의 정유회사라든가 국제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싱가포르의 정제공장등과 비교하면 기술수준이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또는 기타 코스트 서어빙의 문제라든가 이런 면은 뒤지지 않고 국제적인 수준까지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유의 확보능력, 트레이딩 능력같은 것은 역시 국력과도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유회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美國이라든가, 英國이라든가, 日本이라든가, 소위 IEA 국가들의 트레이딩 능력과 우리나라의 능력은 국가 전체적인 국력이라든가 외교능력이라든가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소 우리가 외국에 뒤진다고 봐지게 되지요. 그런 정도의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화·개방화를 앞두고 이런 마당에서 외국기업들이 국내 석유시장에서 밀려나고 생각을 한다면 국내정유업체의 경쟁력 제고, 특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혀야 되겠다하는 것은 정부도 누누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번째 질문하신 소위 신규참입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인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독점또는 과점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독점·과점을 엔조이하고 기업이 그걸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신규참입자가 필요

한 것입니다. 사실기업은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쟁을 불려야 되지만 국내 정부 5사는 경쟁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의미에서는 치열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에 300억~400억원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한푼도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허용이윤에서도 다 까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몇 백억원씩 써가지고 시장확보전을 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한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당에 또 새로운 신규참입자를 집어 넣게 되면 취약한 구조를 더욱취약하게 만드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인식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은 충분히 하고 싶고 할 여건은 돼 있습니다마는 능력이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장비용 인정을 안해주지요. 가격은 정부통제로 묶어 놓고 있는 여건하에서 신규참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의 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美國의 7대 메이저가 리파이닝 과 마케팅 부문에서 전년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매출액 내지 판매량이 약 27%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부 5사의 작년 순이익은 89년도 대비 45% 줄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신규참입자가 자꾸 들어오면 과연 우리의 위상이 어디로 갈 것인가.

日本의 경우 현재 정제능력이 450만 내지 500만 B/D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겨우 지금 100만 B/D 입니다.

日本은 소위 元賣會社라는 것이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日本통상성은 이것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 다섯, 여섯개만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日本 업계가 저희에게 충고하는 것이 제발 당신네들은 다섯개도 많은데 우리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이것을 지켜서 건전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할 것은 하고 또 정부가 혹시 오판을

하고 소비자 단체가 오판을 하고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항상 비판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는 언론이 압력을 넣더라도 이 실상은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우리의 이 위상을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늘 받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언제쯤 신규참입이 가능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갈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정부도 지금 그런 배려하에서 비교적 늦게 출현한 정유사들도 대개 15만 B/D 정도의 정제능력은 다 갖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과거 한 2-3년전에 생각할 때 그 정도면 대개 경제의 규모가 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면에서 국제 정유사들과 비교우위 측면에서 한가지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상류부문 취약합니다. 지금 환경규제 또는 소비패턴이 선진화 되어가고 있는데 탈황시설이라든가 중질유분해시설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李國璋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까지 투자한 것의 시설투자소요가 앞으로 지금의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 마당에 지금 Topper만 국제수준에 갔다고 해서 과연 안정권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 95-96년정도가 되면 어느정도 개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짐작도 해봅니다. 지금 다시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면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몇년이 더 늦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 許부사장님 더 말씀좀 하시지요.

許東秀: 시간도 너무 지나서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油公의 黃이사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쪽 들어 봤더니 현재의 우리 정유시설을 아직도 공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油公이



20만B/D 규모의 시설이 오는 7월에 가동되면 약 140만B/D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油公이 54만, 湖南精油가 38만, 雙龍이 39만, 그리고 極東이 9만이고, 또 京仁이 6,7만이고, 또 極東의 3만 크래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정제설의 능력, 이런 것을 80년대 초, 우리 석유생산패턴이 벵커-C油가 50%, 또 경질유가 50%, 그때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항상 정제시설이 어떠냐,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그와같은 우리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3년 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油公, 湖油, 雙龍등 전체적으로 지금 크래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크래카가 약 20만B/D 추가가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러면 디스틸레이션 파워로 봐서는 그것이 70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3년말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정제시설은 200만B/D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994년에 우리나라 석유소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의 자율화를 시켜놓았더니 三星, 現代 등이 신규로 참여하여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앞으로 4-5년은 큰 수렁속에 빠져 헤어날 수 못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한민국이 적자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여건을 부여하신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유업의 신규참여를 하면 물론 경쟁은 충분히 더 가속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과잉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오픈을 하면 결국은 경쟁을 하다가 몇 회사는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지면 결국은 강자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살아남은 기업은 자기가 그만큼 출혈을 해가지고 살아남았으니까 그 출혈한 것은 다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업하는 사람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코스트만큼 국민이 더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새로운 신규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조금 더 시간을 뒤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쌍용과 아람코 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이 신규투자를 하나의 예로써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신규투자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 우리 정유회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으로 제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첨언 한다면 자율화를 하면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반대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보호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율화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페어플레이로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 자율화 시켜주시고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모든 책임하에서 국민의 지탄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자율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벵커-C油나 디젤, 가정, 산업에, 또 수송에, 그리고 큰 양의 제품을 규제를 하고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간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율화는 국가경제차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묶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것을 가지고 정유회사는 어느정도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비난은 정유회사가 받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비난을 정유회사가 어떻게 안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결국은 정유회사는 사실은 하루살이 그러한 장사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윤을 추구하지만 정유산업은 적어도 국민과 같이 살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공기업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욕을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양쪽을 우리가 만족을 시켜주려면 앞으로 정유업자는 크나큰 어려움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오히려 저희들은 상당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특히 동자부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여태까지도 여러가지 기금의 공과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금의 도입으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정유회사만이 태풍을 맞지 말고 이러한 애로점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화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대로 휘발유나, 등유가격을 너무 올릴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어려운 국면을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잘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앞으로 저희들께 지속적인 가이드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송합니다.

사 회 : 저 옆의 안부사장님도 아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하시지요.

安明柱 :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직책을 맡은지가 오늘로 꼭 한달 하루 밖에 되지 않아서 전문가인 여러분들 앞에 선블리 대답했다가 혼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체계가 안되고 단지 저희 黃斗熹이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얘기들이 가능하면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몇가지 포괄적인 것만 좀 지적을 하고 여러분께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시작한지가 한 28년쯤 되는데, 아직도 엑슨같은 세계적인 메이저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습니다. 작년에 엑슨의 이익이 저희 油公 매출액의 2배가 됩니다. 이와같이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앞으로 어쨌든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서 경쟁을 해 나갈려고 한다면 대단히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람도 훈련시키고, 세계적인 안목들을 키우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그러나 사람 기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젊은 사람들, 신입사원을 길러서 외국에 원유개발하는 데서부터 제품 판매하는데까지 내보내가지고 여러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한편 어쩌냐, 국내에서는 아까 黃이사가 지적했다시피 몇 백억원을 들여서 우리 회사 경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그런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무리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자유롭게 해보고자 해도 오늘과 같이 이런 제한된 경영여건에서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규제는 심해가고, 아까 FCC같은 것, 또 중질유 분해해서 경질유로 만드는 중질유분해 시설을 하는데 대강 얼마 드느냐하면 한 4300억에서 5000억 원정도 들어갑니다. 무슨 재간으로 이런 여건하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데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런 여건에서 그런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그 요청한 투자금액을 보니까 9300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더 사회, 또는 정부의 정유업계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경우는 작년에 270억원 배당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익을 내지만 배당도 하지요. 15%, 16% 배당해주지 않으면 주주총회때 주주들이 야단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배당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는 부분도 더 키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오해도 저희가 차츰 없애

고 국가 또는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자 여러분과 정부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예. 감사합니다.

張전무님, 아까 우리 梁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張珉淳 : 정유업계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정유업계 이 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사장님 두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梁承賢기자께서 정말 기자답게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람코하고 합작해서 시설확장을 위해서 거기와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이는 것을 동업계의 다른 큰 배들이 관심은 많겠지만 그렇게 반대한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許부사장께서도 우리 정유업계 각자가 전부 경쟁력을 기르려면 더군다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려면 현재의 정유시설만 갖고는 안되고, 탈황시설도 해야 되겠고, 크래킹 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좀 생각이 빠른지 모르지만 완전히 기업적 입장에서 자금도 풍부하고 또 산유국으로서 제일 큰배하고 손을 잡아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해보자는 그런 순수한 기업적인 생각이었지요.

또 신문에서「아, 이러면 외세 침략 아니냐, 외세에 대해서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정유회사에 있었지만 대개 처음에 정유산업을 시작할 때에는 조인트 벤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을 보면 완전히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 굴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조문이 전부 한국사람의 것이 하나도 없고 美國, 같은 美國이지만 걸프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만 걸프 그사람들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정유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韓國의 경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제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세계가 지구촌으로 국제화되는 마당에 어떻게

든지 이용할 때는 이용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한테 속아 넘어갈 정도로 우리가 우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유업계만이 아니고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로 경험도 있고 훌륭한 분도 많이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자금을 우리가 이용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미리 시작 해보자는 그런 순수한 입장이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사 회 : 예. 京仁의 河전무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동원 : 저 역시 京仁에너지에 온지가 지금 한 5개월 남짓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油公의 黃斗烈이사께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고 또 許東秀부사장님께서 지금 당분간 시설이 과잉 되어있고, 따라서 공급과잉에 따른 여러가지 경쟁이 심화되어서 우리 정유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어떤 타격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安부사장님께서도 대동소이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저 역시 그런 분들의 입장에 서고 싶은 생각이지만, 여기에 또 당사자인 雙龍의 분들도 나와 있고 해서 확실한 대답은 좀 유보하고 싶고 또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사우디와 한국간에 외교적인 미묘한 관계까지 초래한 그런 민감한 문제이기때문에 이런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내세우기는 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면서 얘기를 끝냅니다.

(웃음)

사 회 : 알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정책 현안에 관련해가지고서 상당히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세시간 격론을 벌인바 있었는데 내년에는 무엇이 토론의 주제가 될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바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토론을 종결하는 취지에서 제가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회장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바는 우리나라 석유 가격의 자율화가 정말로 성공을 거두려면 한가지는 분명히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돼야 되겠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한가지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정부의 우산 밑에 있다라는 인상이 남아 있는 한 가격자율화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율화하면 밖의 가격이 올라 갈때 우리나라 가격도 올라가야 되고 떨어질 때 떨어져야 할 텐데 그런 정부라는 우산 밑에 있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도록 놔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나라는 그런 질문을 반드시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쨌건 간에 그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상에 벗어나는 것이 자

율화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아니겠는 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규제하는 산업과 규제자와의 관계가 항상 규제자가 시간이 지나가면 보호자가 되는데 누구를 보호하느냐 하면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피규제자를 보호하는 그런 행태로 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런 인상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따라서 규제자가 보호자가 되는 그런 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그때가서는 가격자율화가 시행되어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사회자의 관찰사항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부회장 : 李會晟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지한 토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일동박수)

## 일곱가지 성공법칙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곱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 1.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표한 일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가능해"라는 생각을 거듭하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위대한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 2. 당신의 목표를 마음의 소원과 일치시키십시오.

이미 결정한 목표가 마음의 원함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지금 곧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 3.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안돼" "할 수 없어" "나 같은게"라는 소리가 들려 오거든 "이전의 나는 무능했지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응답하십시오.

### 4.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십시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해낼 수 있고 말고"라고 다짐하는 말을 합시다. 말은 힘과 용기를 더하는 영양소입니다.

### 5.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심는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 6.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일곱번 넘어져도 여덟번 일어선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 7. 될 수 있는대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꾸는 때는 수고도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큰 꿈을 하나님의 품으로 가져가십시오.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임을 기억하십시오.